

특별인터뷰 ... 포천경찰서장 김귀찬 총경

사고없는 포천 만들기에 最優先

직원에게 믿음 줘 창의적이고 자율 치안대책 마련 인삼수확철, 경찰인력 집중배치 도난 사전예방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추석 앞두고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추석절 특별방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금융권과 택시 등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서 강·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7월 4일 취임한 김귀찬 서장은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또 도농복합시인 포천시는 농촌과 도시라는 2가지 형태의 치안여건을 가지고 있다.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율방범대 등을 적극 활용해 치안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김 서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3회로 1994년 7월 경정채로 경찰에 입문한 후 구미경찰서 수사과장,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장, 대구경찰청 수사과장, 문경경찰서장, 경찰청 장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서장은 취임사에서 ▶기본에 충실한 경찰 ▶땀땀한 경찰 ▶믿음직한 경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한 경찰' ▶원활한 의사소통 문화정착 ▶정기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 것 등 6가지 사항을 강조한 바 있다. 취임후 포천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김귀찬 서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서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 주>

▶취임이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경찰조직의 기본은 상사가 지시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보면 직원들이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포천경찰서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시에 의한 업무추진보다는 각자 직책에 맞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순찰요원은 순찰을 주 업무로 하고있기 때문에 방범취약 지역이나 우범지역을 관리자보다 더 잘알고 있다. 담당이 자발적으로 생각하면서 근무하게 되면 지시에 의한 근무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파출소장은 인력배치를 잘 하면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순찰할 것인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일선 직원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관리자는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실정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포천지역 치안여건과 대처방안은
 포천지역의 치안여건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혼재되어 있다. 소읍읍과 포천동은 도시형 치안수요가 많고 관할범위는 좁은 편이다. 여기에 비해 일동과 이동, 관인 등 농촌형 지역은 치안수요보다 관할범위가 매우 넓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농촌지역은 이웃간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나 폭력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해소되지만 도시지역은 사소한 시비도 경찰이 개입하고 있다.

포천지역은 서울시 보다 1.4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가능한 한 도시형 지역에 경찰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농촌지역은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은 자율방범대 등을 적극 협력체제로 구축해 치안사각지대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사람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은 교통사고와 사건발생이 집중되어 있어 교통이나 유흥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부족한 경찰력은 지방청의 협조를 받아 사



김귀찬 포천경찰서장은 재임중 음주운전을 철저히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삼 수확철을 맞아 절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했다.

고 발생하면 즉시 범죄를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도 43호선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시설물과 위반차량 단속, 주민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도 43호선 교통시설물은 교통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신호등이 많다. 43호선을 제외한 도로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이나 중앙분리대 설치, 미끄럼방지턱 등 부족한 점은 포천시 예산에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

국도 43호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혼합기종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철저히 관리해 외부인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매일 1개 지점 이상을 지정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실시한다는 의식을 심어줘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다만 사소한 신호위반 등은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치안대책은

추석을 앞두고 현금을 노린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방범 활동을 강화했다. 택시나 편의점 강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범죄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관내 전 금융기관에 일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금융기관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지역은 시설과 장비 등을 보완하도록 촉구했다.

또 인삼추수를 맞아 인삼 절도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경작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주요도로에서 탐 차나 컨테이너 차량, 화물적재차량 등 농산물 운반차량에 검문검색을 강화해 인삼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찰로서 소신과 철학은

경찰은 재복이 상징하듯이 벽돌과 같은 상명하복의 강한 조직이다. 보기에는 불꽃이 없어 보여도 자율적인 체계가 실제로는 강하다. 동료들 아끼는 마음과 스스로 창의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하는 경찰조직이야말로 더욱 강하다고 생각한다.

서장이나 과장이 마음을 열고 직원에게 다가서야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상사와 직원이 서로 믿음이 있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치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완벽한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포천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포천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범죄형태는 도시형 범죄가 많다. 경찰이 최선을 다해 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 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신고하면 참고인 조서를 받는 등 귀찮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큰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범죄신고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④ 포천지역 부동산 貧益貧 富益富 현상

송우주공과상가, 국도변 토지 급상승 포천동 아파트, 농지가격 약보습세 유지

지나해 연말 포천신도시 추진한다는 포천시의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외지인의 투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천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율이 전국 7위라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근거없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지역 부동산 가격은 울주군내면과 가산면 일대에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때 급상승하리라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 실시되면서 농지가격은 5년전 수준과 비슷하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농지에 비해 국도 43호선과 87호선 부근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크게 상승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포천시에 신고한 토지거래허가건수는 2003년 1천326건, 2004년 2천762건, 2005년 3천881건, 2006년 2천498건, 2007년 7월 30일 현재 1천229건 등 2003년 이후 총 1만1천698건에 불과하다.

▶농지가격 약세 유지

포천지역 농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사실상 거래가 많지 않다. 그러나 보니 농지의 구매자는 포천시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 농지의 실제 거래 가격은 5년전 수준과 비슷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비해 농민들이 농지를 매매하고 싶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운부동산 이수성 대표는 "농민들이 늘어나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농지를 매매하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그러다 보니 이지는 늘어나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매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외지인이 취득하고 있다. 정부의 지가안정 대책과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게다가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최고 66%까지 부과되어 구매자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소규모 농민이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도변 상업용지 '깡통'

농지매매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상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국도변 근린생활시설 토지 가격

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국도 43호선과 87호선 주변 토지 가격은 2년전에 150만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경총 뛰고있다. 국도변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송우리 상승, 포천 현상 유지

포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송우주공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송우주공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당시 1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1억6천에서 8천까지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주도층이 몰려들면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면서 일부 아파트는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송우리 지역에는 상가 분양가 혹은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프리미엄이 붙어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상인들이 말이다.

이에 비해 포천동 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물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매자가 거의 없다. 송우주공 32평 아파트가 1억6천만원 이상인 것에 비해 포천동 지역 아파트는 1억1-2천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포천동 아파트 가격은 상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층이 송우리로 이주하면서 포천동은 텅빈 상가들이 많다. 수십년째 포천동 재래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한 모 상인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된 적은 없었다"면서 "대도변을 제외하고는 밤 10시만 되면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울상'

9월 10일 현재 포천시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265개소다. 올연초만하더라도 300개 이상이었던 중개업소가 265개로 감소한 것이다. 중개업소가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는 게 포천시 부동산협회 이수성 회장의 전언이다. 게다가 일년 동안 단 한건도 중개를 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20-30%에 이르고 있다.

11년째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수성 회장은 "지가상승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혁신 거점단지 조성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감도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의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혁신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및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중심의 지방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 사업목표 :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 지역산업의 개선 및 신산업 창출
- ◆ 추진전략 : 특화 및 집중,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개발과 국제화
- ◆ 목적사업 : R&D 지원 사업, 교육훈련사업, 시설이용사업, 기업지원사업, 시험생산, 정보유통사업, 홍보지원, 창업보육사업
- ◆ 국내·외 협력기관
 - 국내 협력기관 : (재)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원 등 10개 기관
 - 국외 협력기관 : 이태리 밀라노상공회의소, 스페인 AIDIMA(가공연구원), 영국 서레이 리서치파크,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세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지, 21C 첨단산업의 메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지역간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며,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 및 기업체와 제품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자체, 대학,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종합지원센터 조감도